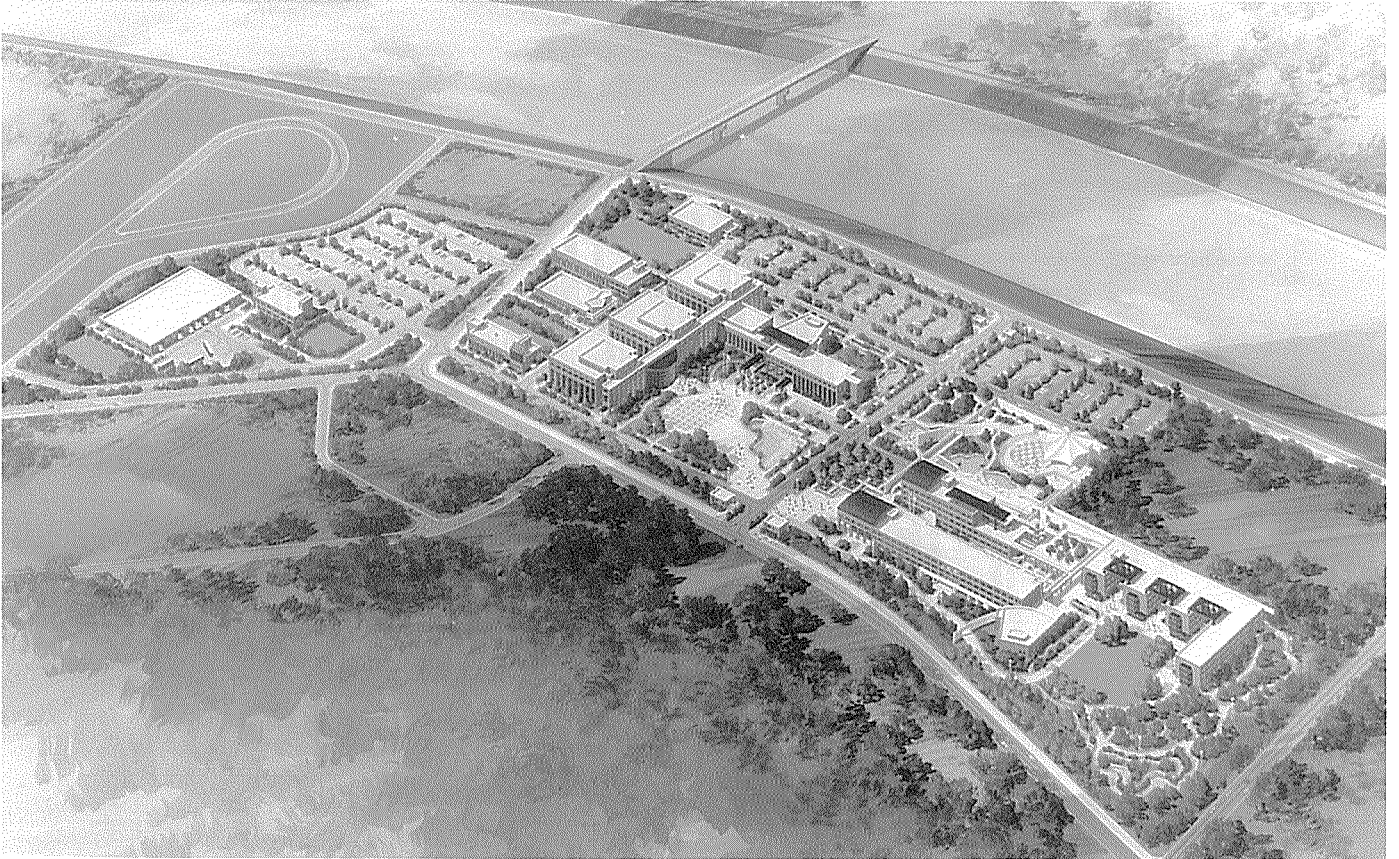


국립환경연구원 및 교육원 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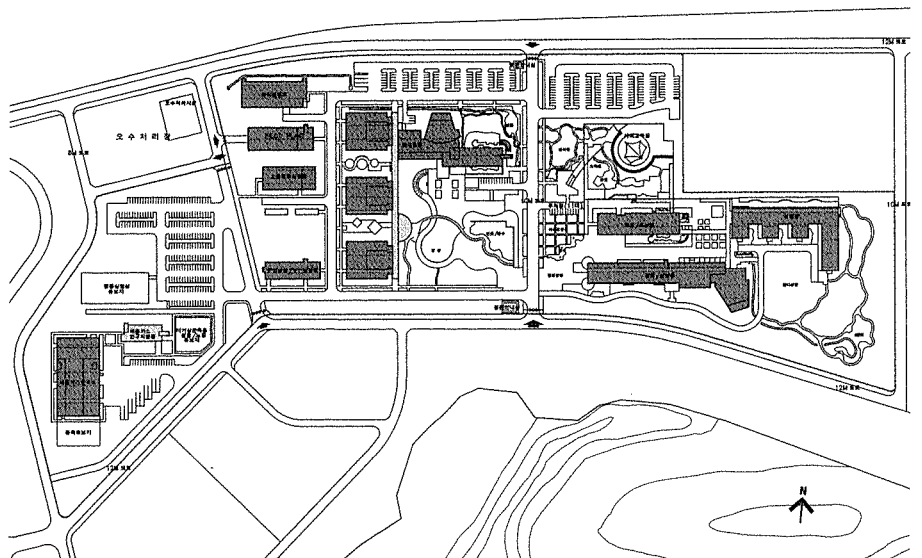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노형래 /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Ro Heung-Rae



조감도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수도권 매립지 제2공구내)
 지역 · 지구 /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 교육, 연구시설
 대지면적 / 160,977㎡
 건축면적 / 18,385.81㎡
 건폐율 / 11.42%
 연면적 / 52,422.07㎡
 용적률 / 27.35%
 주차대수 / 451대
 조경면적 / 73,014.03㎡(48.31%)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방식 / RC/SRC조
 주요외장재 / 점토벽돌
 건축주 / 환경부



배치도



모형도

이 계획은 2000년대를 향한 보다 현실적인 국내의 환경문제의 진보적인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첨단환경 분야의 연구소, 문화복지시설을 고루 갖춘 국제수준의 종합환경 연구단지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지는 굴곡이 적은 평탄 지형으로 정지되어 있고 구배가 적으며 부지 남측에 원형지가 있어 Buffer Green을 형성하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서해로부터 선박 운항이 가능하도록 경인 운하가 계획되어 있다. 배치는 주 진입을 남측으로 계획, 부진입은 북측으로 계획하였으며 Visual Sequence는 동, 북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입지의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함을 전제로 상호연결이 유기적 관계가 되도록 Block Plan을 Zoning 하였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인위적 요소를 배제하고 사용 오수 및 잡배수의 중수처리 후 옥외 수공간으로 활용하여 환경성을 상징하였고 조경식재는 순수 국내서식수종으로 반영하였다. 전체대지의 주 진입에는 광장(Open Space)을 입지시켜 대외적인 상징적 Image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 공무원 교육의 장인 교육시설지역은 행정·후생동을 중심으로 유기적 배치를 하

며 수공간, 야생조류원, 암석원 및 야외교육장으로 자연의 이상적 환경공간을 창출하고 습지 및 잔디로 야생의 자연공간을 형성하였다.

차량동선은 진입도로로부터 순환도로를 이용 각 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였으며 주진입은 정문과 서비스 동선을 위한 후문으로 구분하였다. 보행자 동선은 각시설로의 보행로는 단순, 명확하며 상징공간 환경공간에 계획된 보행로는 다소 다양하게 조경과 긴밀한 계획이 되도록 하였다.

평면계획은 연구원의 경우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연구장비의 스펙 등을 파악하여 사용하는 모든 유틸리티 공급 및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였다. 반면, 기능적 공간이 가지기 쉬운 인간의 내면적 기능을 간파하는 우를 피하기 위하여 내부 분위기를 최대한 안락하게 유도하는 공간계획을 하였다.

또한, 외장재료의 선택에 있어서도 연구원 및 교육생들의 정서적 안정 및 주위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점토벽돌을 사용, 환경에 거스르지 않는 건축물로 계획하였다. Mass계획은 연구원의 경우 기능에 따른 형태 결정으로 변형 가능성이 적었으나 Spine 등을 이용 기능을 적절히 수용하고 정적인

기운데 동적인 선을 형성하였으며 연구원 행정 후생동 및 교육원에서는 Mass의 적절한 분절과 접합으로 단아한 기운데 동적인 형태를 의도 하였고 가벽 및 야외 교육장(막구조)을 계획하고 연결통로의 적절한 사용으로 변화있고 명료한 Mass로 계획하였다. 평면계획은 재실인 1인당 적정 Space 및 실사용 System, 설비 System을 고려하여 Module(6.6m×6.6m)을 결정하였고 중복도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경제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였다.

기능상 휴게 및 헬스시설 등은 지하에 배치하였고 식당 및 강당의 많은 동선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원 행정, 후생동 등에는 선관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주변에 조성된 수공간을 적극적으로 입입하여 식당 및 휴게·헬스 시설 등에서 자연을 적극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입·단면 계획은 매스의 중첩과 분리로 입면에 입체적 명암을 주고 정리된 이미지를 표현하며 정면성 및 Spine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였고 개구부 모듈 및 매스감을 부지 전의 흐름에 맞추어 연구원과 교육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